

영광군 ‘섬 반값여행’… 송이도 가치·매력 알린다

숙박비 등 경비 최대 1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현금 몽돌해변·갯벌체험 등 매력 가득…체류 관광 확대

전남광주통합특시 영광군이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섬 반값여행’을 통해 송이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섬 지역에 새로운 관광 활력을 불어넣는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2026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송이도를 방문해 실제로 지출한 선박운임비와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여행경비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바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단순히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여 관광객은 여행 시작 최소 5일 전 ‘JG TOUR’ 앱을 통해 사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송이도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고 본인 얼굴이 포함된 인증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섬에서 최소 3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송이도에서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영광 전역의 영광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여행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광객이 송이도에서의 여행뿐 아니라 영광 곳곳에서 식사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섬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구조다.



정산 절차도 간편하다. 여행을 마친 뒤 10일 이내에 영수증과 관광지 방문 인증사진 등 증빙자료를 ‘JG TOUR’ 앱으로 제출해 정산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모바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현금받을 수 있다.

송이도는 영광을 대표하는 섬 관광지 가

운대 하나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몽돌해변을 비롯해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체험 등 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여름철 물놀이와 함께 가족 단위 관광객의 체류형 여행지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이번 반값여행을 통해 그동안

접근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섬 여행을 망설였던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당일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숙박과 식사, 체험 등으로 소비를 확대해 섬 주민과 지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침표여행 전담센터(061-350-6796·679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섬 반값여행은 영광군 인접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 관광객 누구나 송이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별한 매력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섬 주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이 되고 송이도가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섬 관광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시 순천시청

순천, 폭염·가뭄 피해 선제 대응 6억2000만원 투입…장비 구입·모터펌프 등 교체

전남광주통합특시 순천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억2000만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농축산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을 예비비에 반영했다.

손훈모 시장은 8일 해룡면 하사리와 농주리 일대 농업 현장을 찾아 벼생육 상태와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상황 등을 살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급수차 운영과 양수기 지원, 영양제 및 방제약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뭄지역 급수차 운영, 방제·방역 소독약품 지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양수장 시설 정비 등에 총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에 나서는 사후 대응보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될수록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전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정된 예산과 제도 안에서 농업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드론 방제로 병해충 확산 막는다

지난해 광양지역 방제 규모 318농가 482만㎡

일손이 부족한 광양지역 수도작 농경지에 드론 활용으로 병해충 방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광양농협과 광양동부농협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수도작 병해충 방제가 어려워지자 농협이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하나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광양지역 농경지의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는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매년 방제 농가와 방제면적이 완만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광양에서 맨 처음 시작한 광양동부농협은 지난 2020년 465만㎡이던 드론 농약 방제 면적은 5년이 지난 지난해는 482만㎡으로 3.7% 늘었다. 하지만 농가수는 277농가에서 318농가로 15%가 증가했다.

광양농협도 2020년 12만㎡이던 것이 지난해는 102만㎡로 750%나 늘었다. 드론방제 신청농가도 지난해 210 농가였지만 올해는 237농가로 1년 사이에 13%나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광양동부농협은 230

만㎡, 광양농협은 64만㎡를 실시해 지난해 방제면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로부터 드론공동방제 신청 면적이 증가하자 광양농협은 현재 1대인 드론을 올해 말 1대 더 도입해 내년부터는 2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농협은 현재 드론 3대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을 세동간척지에서 6만6000㎡의 수도작을 재배하고 있는 배정안씨(78)는 “노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 농약 살포하기가 어려운데 몇 년 전부터 농협이 드론으로 대행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신청만 하면 필요 농약까지 가져다가 공동살포를 해줘 매우 편리하고 골고루 살포도 잘돼 흡족하다”고 말했다.

허순구 광양농협조합장은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적기방제 필요성이 더욱 커져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수도작에서 다른 작물방제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양농협이 수도작 재배지에서 드론농약살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성,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 확대

서울·광주·동탄서 판촉전 판로 확대·소비자 부담 완화

전남광주통합특시 장성군이 제철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여름철 농특산물 판촉전에 나선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장성물’과 서울 조계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몰 등 4곳에서 ‘여름맞이 장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산지에서 갓 출하한 포도와 복숭아를 비롯해 레몬즙과 토마토즙 등 장성의 대표 농특산물 300여개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소비자와 지역 농가를 직접 연결한다.

온라인에서는 오는 20일까지 87개 업체가 참여하는 장성물 판촉전이 열린다. 행사 기간 장성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장성 농특산물을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오프라인 판촉도 지역별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최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여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시 장성군청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는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몰에서 6개 업체가 장성산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광주 롯데백화점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장성 농특산물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지역 농가가 생산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며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특히 여름철 대표 과일인 포도와 복숭아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산 포도는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으로 자란 풀과 함께 재배해 건강한 재배환경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높은 당도와 산지 직배송을 통한 신선함도 강점으로 꼽힌다.

장성 복숭아는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 진한 향을 자랑한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아 안전성과 품질을 함께 확보했다.

장성을 대표하는 아열대 과일인 레몬을 활용한 가공품도 선보인다. 와스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장성산 레몬으로 만든 레몬즙은 생레몬 특유의 깔끔하고 상큼한 맛을 살렸다. 생레몬은 수확철인 9월께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농특산물 판매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를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이항범 기자 inh6699@gwangnam.co.kr

담양, 고향사랑기부 참여 이벤트 200명 네이버페이 1만원권 지급

전남광주통합특시 담양군은 여름휴가철 담양을 찾는 관광객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담양에 기부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자 2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담양에 기부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자’에 이은 추가 이벤트로, 담양 여행과 지역 상권 이용을 고향사랑기부로 연결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기간 담양을 방문해 지정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한 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이용 영수증을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정 업소는 쌍교숯불갈비, 담양애꽃, 덕인관, 베비에르 담양점, 들꽃들 등 5개 소다. 군은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면서 고향사랑 기부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울여름 담양에서 여행의 즐거움과 함께 지역을 응원하는 뜻깊은 기부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이수자 기자 lss270@

목포 근대역사관에 대형 태극기 게시

20일부터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 운영

전남광주통합특시 목포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근대역사관 2관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게시하고, 광복의 의미와 목포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려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근대역사관 2관 외벽에 가로 8.5m, 세로 5.5m 규모의 대형 태극기를 게시했다.

구 동아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이었던 근대역사관 2관에 태극기를 게시한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대형 태극기는 8월까지 게시되며, 시민과 관광객은 근대역사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근대역사문화유산의 가치도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앞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국가유



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전국 9개소 중 신규 코스 거점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근대역사관 1관에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를 운영한다. 방문객이 국가유산을 둘러보고 방문자 여권에 인증 도장을 찍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포 근대문화유산을 알리는 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